

뉴스홈 | 최신기사

<프로야구> '작두 탄' 선동열..PS서 연일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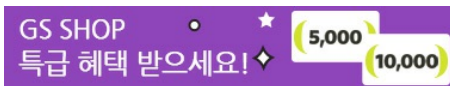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08-10-09 22:17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프로야구> '작두 탄' 선동열..PS서 연일 대박

(부산=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선동열 삼성 감독의 예언이 마치 작두를 탄 도령처럼 착착 들어맞았다. 허를 찌른 선수 기용과 작전으로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표팀의 금메달을 이끈 김경문 두산 감독을 보는 듯했다.

선동열 감독은 9일 롯데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앞서 주목할 선수로 좌타자 채태인을 지목했다. "어제 1차전에서 우전 안타 1개를 때리긴 했지만 좀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좀 나아질 것이니 지켜보라"고 말했다.



아니나다를까 채태인은 0-0이던 2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롯데 선발 손민한의 초구를 잡아당겨 우측 펜스를 직접 때리는 2루타를 때렸고 조동찬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을 올렸다.

1-1로 맞선 4회에는 역시 2사 후 풀카운트 접전 끝에 손민한이 뿌린 몸쪽 슬라이더를 기막히게 걷어 올려 우측 스탠드에 꽂히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7회 박진만의 적시 2타점 2루타로 삼성이 4-3으로 이기긴 했으나 까다로운 손민한을 무너뜨린 건 채태인이었다. 전날 6타수4안타로 펄펄 난 박한이(부산고 출신)에 이어 부산상고 출신 채태인이 다시 한번 고향팬 가슴을 아프게 했다.

3타수2안타 1타점, 2득점을 올린 채태인은 데일리 MVP에 뽑혀 상금 100만원을 받고 수훈감으로 평가 받았다.

선 감독은 전날 "우리가 최소 4-5점 이상을 뽑아 이길 것이며 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12-3으로 대승하면서 예상은 적중했다. 1-2차전에서 보듯 "경험 많은 베테랑이 기대 이상으로 해줄 것이다. 타격감이 무척 좋다"는 예측도 빗나가지 않았다.

포스트시즌에서 매 경기 직전 선 감독이 내린 전망은 해가 갈수록 정확성이 높아가고 있다.

2004년 수석코치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이래 5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고 감독에 데뷔했던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경기를 읽는 눈이 '도사'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상대팀 선수들의 흔들리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내면서 경기 운영 능력도 향상됐다.

또 4년간 삼성을 지휘하면서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했고 장악력을 높이면서 용병술 역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선 감독은 박석민을 2번에, 진갑용을 4번에 포진시킨 새로운 타순을 한대화 수석코치, 이종두 타격코치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포스트시즌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면서 지도자로서 자질을 키운 선 감독은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기에 면밀한 관찰로 선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복장(福將)들만 할 수 있다는 감(感)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아구'를 펼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선 감독은 예상이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에 대해 껄껄 웃으면서도 "앞으로는 전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기누설'로 공연한 구설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던 탓이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09 22:1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밀둥밀둥...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간급]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2년1
개월만

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중,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52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사회 밝
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 | | | |
|--------|---|--------|---|
| 테마별뉴스 |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 출판물 |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
| 뉴스+ | 이슈돌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아시아 헤드라인 | 광고 |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
| 모바일 뉴스 | 모바일웹 모바일앱 | 콘텐츠 판매 |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
| 외국어 |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 관련사이트 |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

계약사제휴문의